인싸의 시장 관찰 기록 — 2026-11-19 (목요일)

[오늘의 한 줄]

엔비디아 실적 안도는 하루 만에 바랬지만, 코스피는 이틀째 올라 5,1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. 오늘 밤 역대 최대 규모로 보도된 앤트로픽의 나스닥 첫 거래가 AI 투자 심리의 다음 시험대입니다.

[확인된 데이터]

■ 한국 시장 (11/19 정규장 마감, 오후 4시 30분 — 수능일 연장 거래)

- 코스피 5,137.89 (+70.45, +1.39%).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. 오전 약보합권에서 머물다가 오후 2시 반 이후 수출 1조달러 돌파 소식에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(연합뉴스). 종가 기준 연중 고점(6/22 9,114.55) 대비 -43.6%, 9월 반등 고점(9/23 7,080.92) 대비 -27.4%. [계산]
- 코스닥 684.81 (+22.00, +3.32%).
- 공포지수(VKOSPI) 53.97 (-2.39%). 3거래일 연속 상승을 멈추고 내렸습니다.
- 반도체: 삼성전자 196,900원 (+1.13%), SK하이닉스 1,183,000원 (+3.41%). 삼성전기 885,000원 (+9.26%), 전날 발표된 엔비디아와의 협력 확대(패키지기판에 이어 MLCC까지) 소식에 이틀째 강세 (비즈니스포스트·한국경제).
- 전력기기 3종도 동반 상승: HD현대일렉트릭 415,500원 (+8.63%), 효성중공업 1,796,000원 (+6.90%), LS일렉트릭 120,800원 (+4.14%).
- 원화는 달러당 1,330.0원 (오후 3시 30분 기준, 전일보다 3.0원 강세, 연합뉴스).
- 대학수학능력시험일로 거래 시간이 1시간 늦춰져 오전 10시에 개장해 오후 4시 30분에 마감했습니다.

출처: 연합뉴스 마감 기사, Hongzi(VKOSPI), 네이버 금융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119149300008
https://www.businesspost.co.kr/BP?command=article_view&num=452456
https://fear.hongzi.us/data

■ 오늘 누가 사고팔았나 (정규장 마감 기준, 오후 4시 30분)

- 코스피: 외국인 -4,035억원으로 5거래일 연속 매도. 개인 -655억원, 기관 +194억원 (연합뉴스 마감 기사 인용).
- 15시 35분 집계 상세 (연합 [표]): 금융투자 +606억원, 투신 +790억원, 사모 -725억원, 연기금등 -772억원 (매도 전환), 기타법인 +4,514억원.
- 코스닥 (15시 35분 집계): 외국인 -2,127억원, 기관 +2,126억원, 개인 +28억원.

- ※ 오늘은 수능 연장 거래라 15시 35분 표는 장중 수치이고, 위 마감 수치와 집계 시각이 다릅니다.
출처: 연합뉴스 마감 기사·투자자별 매매동향 표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119149300008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119140300008

■ 미국 시장 (11/18 수요일 마감)

-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혼조: 나스닥 24,429.89 (+0.42%), S&P500 7,323.63 (-0.23%, 5거래일 연속 하락), 다우 50,198.17 (-1.11%), 러셀2000 2,714.31 (+0.46%),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9,652.80 (+0.10%).
- 엔비디아 150.96달러 (-2.89%). 실적 발표 직후 시간외 상승분(+3% 이상)을 정규장에서 모두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. 개별 성적보다 AI 인프라 자본지출·부채조달 구조에 시장 관심이 쏠렸다는 분석입니다 (연합뉴스).
- 팔란티어 156.67달러 (+0.07%), 아이온큐 23.48달러 (-5.48%), 아마존 267.74달러 (+3.83%), 오라클 -0.97%, GE버노바 -0.99%. AMD +5.31%, 브로드컴 +3.64%, 마이크론 -1.00%, 유나이티드헬스 -10.21%, 타깃 +4.01% (연합뉴스).
- 미 국채 11/18 확정 (재무부): 10년물 5.07% (-3bp), 2년물 4.80%, 3개월물 4.34%, 30년물 5.41%. 10년-2년 스프레드 +0.27%p. [계산]
- 한국 국고채 3년 3.715% (-2.1bp). 일본 30년물 4.025% (-3bp, 11/19). [계산]
출처: 야후파이낸스, 미 재무부, 연합뉴스, 재련사(cls.cn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119010551072
https://home.treasury.gov/resource-center/data-chart-center/interest-rates/TextView?type=daily_treasury_yield_curve&field_tdr_date_value=2026
https://www.cls.cn/detail/2538481

■ FOMC 의사록과 앤트로픽 상장 (오늘의 두 축)

- 10월 FOMC 의사록 (10/27~28 회의, 한국시간 오늘 새벽 4시 공개): 기준금리 3.75~4.00% 동결 당시 리사 쿡 이사와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2명이 25bp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. "거의 모든" 참석자가 향후 몇 달 안에 추가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고, "몇몇"은 물가가 불리하면 25bp보다 큰 폭(빅스텝)의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의사록은 인플레 압력이 광범위하며 AI 인프라가 가격을 자극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(연합뉴스). [향후 금리 경로는 아직 연준의 실제 결정이 아니며, 시장 전망은 언론 해석 단계입니다]
- 앤트로픽: 상장 공모가를 83달러로 확정했습니다 (희망 범위 70~78달러 상향, 회사 공식 발표 현지 11/18). 공모 9억8천만 주에 83달러를 곱하면 약 813억 달러 규모 [계산]이고 초과배정옵션 1억4,700만 주는 별도입니다. 연합뉴스·블룸버그·로이터 보도는 사모 배정까지 합한 조달액을 94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하며 역대 최대 IPO로 전했습니다. 한국시간 오늘 밤 11시 30분 개장 후 나스닥에서 심볼 'ANT'로 첫 거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.
- 첫 거래 가격은 개장 전이라 아직 확인할 값이 없습니다.

출처: 연합뉴스, 앤트로픽 공식 보도자료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119014700072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119010051091
https://www.anthropic.com/news/anthropic-prices-initial-public-offering

■ 채권·환율·원자재

- 유가 급락: WTI 83.26달러 (11/18 마감, -3.20%, 8월 26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저). 브렌트 91.95달러 (-1.28%). 미국 주간 원유재고가 +340만 배럴(4억1,780만 배럴)로 예상(로이터 폴 +5.8만 배럴)을 크게 웃돌았고 휘발유 재고도 +520만 배럴 늘었습니다 (EIA 11/18 주간 보고, CNBC).
- 금 3,722.0달러 (한국시간 14시 기준, 진행 중).
- 나스닥100 선물 27,799.5 (한국시간 14시 기준, 진행 중).
출처: 연합뉴스, CNBC, 야후파이낸스
https://www.cnbc.com/2026/11/18/oil-prices-fall-as-higher-us-crude-stocks-temper-supply-risks.html

[복기]

어제의 판단을 실제 값과 대조합니다.
- 11/18 판단: "코스피 종가가 5,067.44 아래일 것" (T+1, 11/19 검증) → 실제 종가 5,137.89. 미적중.
- 11/12 판단: "코스피 종가가 5,342.73 아래일 것" (T+5, 11/19 검증) → 실제 종가 5,137.89. 적중.
- 11/11 판단: "코스피 종가가 5,375.36 아래일 것" (T+5, 11/18 검증) → 실제 종가 5,067.44. 적중. (어제 복기 누락분)
- 해석: 이틀 연속 반등으로 직전 판단은 어긋났지만, 일주일 전 판단들은 들어맞았습니다. 누계 39건 중 23건 적중.
- 한계: 같은 흐름 안의 연속 관측이라 독립 시행이 아니고, 단순 규칙의 참고 기록일 뿐 실력의 증거는 아닙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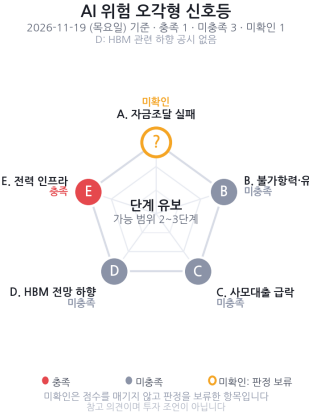
[판단]

- 실적 안도의 수명은 하루였습니다. 엔비디아는 예상을 크게 웃돈 성적표에도 정규장에서 -2.89%로 돌아섰고, 시장의 무게추는 개별 성적에서 AI 인프라 자본지출과 부채조달 구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. 새벽에 공개된 FOMC 의사록이 AI 인프라를 물가 자극 요인으로 짚은 것도 같은 방향의 신호입니다.
- 그런데도 코스피는 이틀째 올랐습니다. 삼성전기·엔비디아 협력 확대, 수출 1조달러 돌파, 한한령 완화 기대가 받쳐줬습니다. 다만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팔았고 기관 매수는 194억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. 반등의 동력이 아직 두텁지 않습니다.
- 오늘 밤 앤트로픽 첫 거래가 분기점입니다. 공모가는 희망 범위를 넘긴 83달러로 정해졌고, 첫 체결·종가가 공모가를 얼마나 웃도는지가 AI 투자 심리의 온도입니다.
- 오늘의 새 판단 기록: "코스피 종가가 5,137.89 아래일 것" - T+1(11/20, 금), T+5(11/26, 목)에 각각 검증합니다.

- 판단을 바꾸는 조건: (1) 앤트로픽 첫 거래 흥행 (한국시간 11/19 밤 11시 30분 개장 후, 공모가 83달러 대비 첫 체결·종가). (2)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의 다음 세션 방향. (3) 외국인 순매도 연속성과 기관 매수 유지 여부.

[AI 위험 v1]

AI 투자 열기의 균열을 미리 잡기 위해 정해 둔 다섯 가지 조건입니다.



- A. AI 기업의 자금조달 실패·철회 (최근 30일 2건 이상): 미확인 (판정 보류, 유지). 네비우스 채권 철회는 결정일이 특정되지 않아 30일 창 판정이 불가하고, 엔스케일의 상장 1개월 연기는 정의상 실패·철회와 달라 2건 충족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. 오늘 앤트로픽의 공모가 확정은 성공적 자금조달이라 건수와 무관합니다. 확인된 실패·철회 2건이 쌓이면 충족으로 바로잡겠습니다.
- B. AI 인프라 금융 프로젝트의 불가항력(force majeure) 통보 또는 지급 유예: 미충족. 오늘 확인한 검색 범위 안에서는 해당 사례가 없었습니다.
- C. 사모대출 운용 3사(APO·KKR·BX) 중 2사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-20% 이하: 미충족. 블랙스톤 -22.51%로 기준선 아래 1사뿐이고, 아폴로 -18.33%, KKR -18.75% (11/18 종가). [계산]
- D. 엔비디아 또는 삼성·SK의 HBM(고대역폭 메모리, AI 칩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) 실적 전망 하향: 미충족. 세 회사의 HBM 관련 공식 전망 하향은 오늘 확인한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. (엔비디아의 전사 매출 전망 상향이나 삼성전기 협력 확대는 HBM 전망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므로 참고로만 봅니다.)
- E. 전력 인프라 4종(GE버노바·HD현대일렉트릭·효성중공업·LS일렉트릭) 중 2종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-30% 이하: 충족 (유지). GE버노바 -34.27% (11/18 종가), HD현대일렉트릭 -65.20%, 효성중공업 -55.18%, LS일렉트릭 -57.61% (한국 3종 11/19 마감). [계산]
- 종합: 확정된 충족은 E 1개('2단계' 해당). A 1개가 미확인이라 확정 단계는 유보합니다 (가능 범위 2~3단계).
- 이 표의 임계값은 미리 정해 둔 편집 기준입니다.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.